

환경운동의 구조와 동학*

김호기**

이 연구의 목표는 한국 환경운동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경험적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환경운동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둘째, 환경운동단체의 이념적 지향은 생태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환경관리주의, 자연보호주의, 심층생태론 등의 여러 이념들이 결합되어 있다. 셋째, 환경운동단체는 6월 민주화운동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에의 자발적인 참여도와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낮은 조직적 특성으로 보여주고 있다. 넷째, 환경운동단체의 행동수단은 직접 행동, 문화 혁신, 그리고 정책 제시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의 목적은 '영향의 정치'를 활성화하여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데 있다. 다섯째, 환경운동단체는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의 연대, 다른 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를 추진해 왔지만, 후자의 경우 생태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상충에 따라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환경운동은 이데올로기, 쟁점, 운동방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사회운동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환경운동은 여전히 구사회운동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되어져야 한다.

1. 문제제기

90년대 들어와 우리사회에서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이다. 60년대 이후 성장제일주의의 산업화에 따른 각종 공해와 오염의 증대는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 분야 중점영역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주요 관심분야는 현대사회론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현대자본주의와 한국사회』(1995), "세계화 시대의 자본과 국가"(1998) 등이 있다(연락처: 02-361-2428, E-mail: kinhoki@unitel.co.kr).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지난 2-3년만 하더라도 시화호 오염 사건, 대만핵폐기물 북한 반입,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 오염, 그리고 이상기후변화 등이 커다란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환경에 대한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환경위기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운동을 활성화시켜 왔다.

환경운동의 목표는 자연보호에서 시작하여 생존권 보장, 공해추방, 생활공동체 건설, 반핵운동, 그리고 사회변혁에 이르는 다양한 쟁점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 환경운동의 역사적 기원은 오랜 과거로까지 소급되지만 서구의 경우에는 60년대 후반 이후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80년대에 들어와서야 영향력 있는 사회운동으로 활성화되었다. 우리사회에서 환경운동은 80년대에 공단이나 원전지역의 피해주민들을 중심으로 국가와 정면으로 대결한 사례들이 주요 흐름을 이루어 왔으나,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도시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참여 민주주의적 요구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시민운동이 새롭게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의 목표는 이러한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환경운동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경험적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글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2장에서는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가 개괄적으로 논의된다. 서구와 비교해 볼 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환경운동과 환경운동단체는 지난 20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이어 3장에서는 환경운동단체의 이념적 지향과 조직적 특성이 검토된다. 환경운동단체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으며, 그 조직적 특성은 어떠한가의 문제가 여기서 분석되는 주요 쟁점이다. 4장에서는 환경운동단체의 행동수단과 전략이 논의된다. 기존의 사회운동단체와 비교해서 환경운동단체는 어떤 운동방식을 활용하고, 또한 다른 사회운동단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연대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이 장의 주요 분석대상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한국 환경운동의 성격을 신사회운동론에 준거하여 검토하고 환경운동의 향후 과제에 대해 약간의 생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2. 환경운동의 전개과정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는 자본주의 산업화의 전개과정과 그 궤적을 같이 한다. 단

기간에 진행된 압축적 경제성장에 대응하여 한국의 환경운동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왔다. 크게 보아 한국의 환경운동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분기점으로 하여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 환경운동의 역사를 이렇게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하는 것은 6월 민주화운동에 따른 정치적 개방과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환경운동의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전자의 시기가 조직적 환경 운동이 등장하고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라면, 후자의 시기는 환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다양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 환경운동의 형성기(1960-1987)

주지하듯이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는 수입 에너지원과 기초원료 및 중간재를 에너지 다소비형·공해다발형 생산설비의 가동을 통해 가공조립하여 산업공해와 환경오염을 누적시켜 왔는데, 이 과정에서 공해의 지리적 분포는 공업의 재배치 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왔다(최병두, 1991; 백육인, 1990).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공해에 대응하여 60년대와 70년대에 공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이주요구 등의 지역환경운동이 발생했지만, 경제성장이 최우선적인 과제였던 만큼 이러한 환경 운동은 당시 국민들로부터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²⁾ 본격적인 환경운동은 80년대에 들어와서야 시작되었는데, 핵발전소지역이나 공단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존권 투쟁, 피해보상운동, 이주대책요구 등이 활발하게

- 1) 한국의 환경운동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구도완(1996), 정수복(1996), 이득연(1998)의 연구를 지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구도완의 연구는 경험적 자료에 기반하여 한국 환경 운동의 역사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구도완에 따르면, 한국의 환경운동은 4개의 시기로 나누어질 수 있다. 곧 제1시기(1960-1979)에는 공단 주변 주민들의 피해보상운동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제2시기(1980-87)에 들어서 환경운동의 이념과 조직, 전략을 가진 전문환경운동조직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제3시기(1988-91)에 이르러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환경운동조직이 활성화 된 이후, 제4시기(1992년 이후)에 이르러서는 대다수 환경운동조직이 현실주의적 전략에 기반하여 적극적인 환경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 2) 구도완(1996: 147)과 정수복(1996: 142)에 따르면, 1965년 부산 감천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매연분쟁이 최초의 환경운동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외에 울산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와 여천, 광양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 등은 60-70년대 선구적인 환경운동이라 할 수 있다.

전개되었다(구도완, 1996). 온산 주민의 집단이주 요구(1985-1986), 목포 진로주정공장 설치 반대(1983), 아산만 주민 피해보상 요구, 하동 어민 피해보상 요구(1985) 등은 80년대 전반의 가장 대표적인 환경운동으로 지목될 수 있다.

80년대 전반에 환경운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환경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환경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전문환경운동단체가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구도완, 1996; 이득연, 1998). 70년대에 환경운동단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인 환경운동을 전개한 전문운동단체의 효시는 1982년에 설립된 공해문제연구소(공문연)이다. 공해문제연구소는 공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반공해 운동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공해피해 지역 실태조사, 공해피해 상담, 공해 강좌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공문연의 뒤를 이어 1984년 반공해운동협의회(반공협), 1986년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공민협), 1987년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공청협)가 결성되어 공해문제의 연구 및 홍보, 반공해운동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이 시기에 환경오염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환경운동단체 또한 조직되었는데, 예를 들어 1982년 온산면 이주추진협의회, 1983년 영산호보존회, 1986년 삼학도보존회, 1987년 유달산보존회 등이 창립되어 지역사회의 반공해운동과 환경보존운동을 활발히 추진했다.

이 가운데 특히 온산병으로 세상에 알려진 온산 주민들의 피해보상운동은 지역운동단체에 공문연, 반공협 등과 같은 연구 및 운동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피해보상과 이주보상을 관철시켰던 80년대 전반 대표적인 환경운동의 사례이다(환경과공해연구회, 1991: 167-175). 이 온산 반공해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국적기업과 결탁하여 특정 지역을 황폐화시킨 국가의 성장제일주의 축적전략에 있었으며, 그 운동의 진행과정 또한 지역환경운동과 국가권력 사이의 무매개적인 대결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 온산 반공해운동은 환경오염을 낳은 정치, 경제적 구조에 대한 대응이 전면적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운동의 조직화 및 전개과정에서 환경운동단체와 연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파괴를 여론화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80년대 전반 환경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보상을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환경파괴의 일차적인 원인을 정부의 반환경적 발전전략에서 구함으로써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민족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했다는 점에 있었다.

2) 환경운동의 확산기(1987-현재)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환경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을 제공했다.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권위주의정권이 해체되기 시작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면서 이루어진 정치적 개방은 환경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와 시민사회의 팽창은 다양한 생태적 관심에 기반한 다수의 환경운동단체들이 결성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했으며, 이에 따라 국가에 저항하는 민족민주주의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왔던 환경운동의 성격이 또한 변화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삶의 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특히 1992년 리우 환경회의가 국내에 크게 보도되면서 환경오염 및 파괴는 공공영역에서 가장 활발히 토론되는 주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예를 들어 <표 1>의 지난 5년간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10대 뉴스는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내의 핵심 사안을 이루어 왔던 쟁점들이었다.

90년대 환경운동의 성격 변화는 무엇보다도 도시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환경운동이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김호기, 1995a). 1987년 이후 자원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및 줄이기, 자연보호 캠페인, 소비자보호운동, 생활공동체운동 등을 포함한 새로운 환경운동들이 대거 등장했으며,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전반적으로 '전국민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는 시각에서 직접적인 저항의 방법보다는 생활실천운동 중심의 캠페인이나 여론형성, 정책건의 및 입법요구 활동 등에 주력하여 기존의 민족민주운동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의 주체로 화이트칼라 중심의 중간계급이나 지식인·학생·종교인·주부 등 주변층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그 행동수단 또한 강연회, 공청회, 시위 및 농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어 왔다.

환경운동이 이렇게 확산되고 다양화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지역환경운동이 감소한 것은 아니었다. 시민사회의 팽창은 지역의 생태적, 경제적 이익과 결합된 지역환경운동을 또한 증폭시켰는데, 상봉동 진폐증 보상운동(1988), 영광·고리·월성주민 원전 반대운동(1988), 영광 원전 3·4호기 건설 반대운동(1989), 군산 TDI공장 건설 반대운동(1990),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운동(1990), 폐놀 사건에 대한 대구 시민 피해보상 운동(1991),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1995), 시화호

〈표 1〉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10대 뉴스(1993-1997)

1993	1994	1995	1996	1997
1. 국제적 핵쓰레기장이 되어 버린 동해	1. 낙동강, 영산강 식수 오염 2. 서울 대기오염 2. 김영삼정부 환경정책 후퇴 3. 지리산 양수댐 건설 환경영향평가 조작 논란 4. 쓰레기 소각장 유치대상 주민 분노 5. 광양 앞바다 기름 대량 유출 6. 반핵운동 확산 7. 당국 수돗물 측정 불신 증가 8. 민간단체 공해 기업 상품 불매 운동 9. 인제 제병훈련 장 설치 계획 10. 민간환경단체 전국적 조직화	1. 낙동강, 영산강 전국적 실시 2. 연안 바다 뒤흔드는 최악의 적조 3. 굴업도 핵폐기장 무산 4. 국립공원 덕유산 환경파괴 5. 김포 매립지 침수 출수 대량 누출 6. 생수시판 허용 7. 공해산업 원진 8. 환경처, 환경부 9. 산본쓰레기 소각장 건설 강행 10. 그린피스, 환경운동 반핵 캠페인	1. 쓰레기 종량제 2. 연안 바다 뒤흔드는 염 3. 굴업도 핵폐기장 기름 4. 연이온 방사능 누출 사고 5. 김포 매립지 침수 6. 생수시판 허용 7. 공해산업 원진 8. 환경처, 환경부 9. 산본쓰레기 소각장 건설 강행 10. 그린피스, 환경운동 반핵 캠페인	1. 시화호 무단방류, 시화공단 오염 2. 연안 바다 뒤흔드는 염 3. 가야산 해인골 4. 핵발전소 방사능 관리 사고 5. 위천공단 건설 6. 한탄강, 임진강 하천 오염 7. 수도권 젖은 쓰레기 반입 금지 8. 동물의 멸종 위기 9. 무너지는 그린벨트 10. 후퇴하는 환경 정책과 삶의 질 10. 가야산 해인골 10. 가야산 해인골
1.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출 저지운동 2. 그린벨트 보존 3. 탐险설로 파괴되는 자연생태계 4. 다이옥신 검출 5. 매립으로 사라지는 갯벌 6. 자동차 백만대 시대의 대기오염 7. 핵발전소 주변 양산단층, 활성단층으로 밝혀짐 8.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정부기관 9. 기후변화협약 전소 건설 문제 10. 휴전선 접경 지역 보존 논란				

출처: 환경운동연합, 1994, 1995, 1996, 1997, 1998a에서 정리.

살리기 운동(1996)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역환경운동의 역사에서 특히 반핵운동은 반공해운동과 함께 매우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경험적인 조사에 따르면, 핵폐기장 건설반대운동에서는 경제적 이해관심이 우선시되는 반면에, 핵폐기장 건설반대운동에서는 경제적 이해관심과 생태적 이해관심이 결합된 반대논리가 구성되어 왔다(이득연, 1992). 한편 핵시설이 이미 가동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반핵운동에도 차이가 관찰되는데, 전자의 지역에서는 이미 그 시설에 따른 내부적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이 형성되기 때문에 반대운

동이 활발하지 못한 반면에 이해관계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민참여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재묵, 1995).

1987년 이후 환경운동의 보다 대중적인 활동을 위해 결성된 대표적인 단체는 1988년 창립한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이다. 공추련은 공민협과 공청협이 통합된 단체로, 1987년 이후 진행된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환경운동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반핵운동을 위시하여 환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구도완, 1996). 이 공추련은 1993년 부산, 대구, 광주, 마산, 창원, 울산, 진주, 목포, 군산 지역의 환경운동단체와 통합하여 전국 최대의 단일 환경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환경련)으로 개편되었다. 이와 더불어 1989년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과공해연구회가 창립되었으며, 1991년에 창립한 배달환경회의는 대한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 푸른한반도되찾기시민의모임과 통합하여 1994년 배달녹색연합(이후 녹색연합으로 개칭)으로 출범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은 전국적 지부를 갖춘 대표적인 환경운동조직으로 90년대 초반 이후 환경운동을 주도해오고 있다.

환경운동단체 이외의 시민단체가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YM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독자적으로 또는 환경운동단체와 연대하여 생활환경운동, 환경감시 및 고발, 캠페인 및 여론 형성, 입법 요구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을 모색해 왔다. 이 운동단체들은 환경운동 이외에 다양한 사회복지운동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시민운동단체이지만 독자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여론화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해 왔다. 한편 다양한 공동체운동조직의 등장 또한 환경운동 분화의 또 하나의 징표이다. 1989년 조직된 한살림 모임은 유기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생명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공동체운동조직이며, 이 외에도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그리고 소규모 종교공동체가 대거 조직되었다. 이런 다양한 환경운동단체의 조직화는 환경운동의 확산과 분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에 관한 이슈들을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3. 환경운동단체의 이데올로기와 조직적 특성

1) 환경운동단체의 현황

환경운동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환경운동단체의 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 2>에 따르면 1998년 4월 현재 민간환경단체는 허가단체, 비허가단체, 참여단체를 포함하여 385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80년대 초반

<표 2> 민간환경단체 현황

(1998. 4. 20 현재)

구 분	허가단체	비허가단체	참여단체	계
서 울	80	119	47	246
부 산	3	5	—	8
대 구	2	13	—	15
대 전	1	11	—	12
인 천	—	11	—	11
광 주	3	4	—	7
경 기	5	22	—	27
강 원	1	3	—	4
충남 · 북	1	7	—	8
전남 · 북	2	11	—	13
경남 · 북	4	29	—	33
제 주	—	1	—	1
계	102	236	47	385

1) 허가단체: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

2) 비허가단체: 환경운동을 목적으로 자유롭게 설립하여 활동하는 단체

3) 참여단체: 본래의 설립목적 이외에 사회적으로 환경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환경운동을 병행하는 단체

출처: 환경부, 1998: 159.

몇몇의 환경운동단체만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환경운동단체의 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허가단체가 236개로 가장 수가 많은데, 이는 환경운동을 추진하는 데 정부 및 기타 기관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불가피한 전략에 기인한다. 한편 참여단체는 YMCA나 경실련 환경센터 등과 같이 사회운동과 병행하여 환경운동을 펼치는 경우이며, 전부 서울에 소재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주목할 것의 하나는 환경운동단체의 서울집중도로, 전체 단체의 3분의 2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 경제, 정보의 수도 집중 경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향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환경운동의 기본 성격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환경운동단체의 이데올로기와 조직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주목되어져야 한다. 첫째, 환경운동단체는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 활동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크게 보아 환경운동단체는 그 운동 주체에 따라 피해자운동단체와 시민운동단체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피해자운동단체가 집단이 주 요구, 혐오시설 반대, 피해보상 요구, 공장입주 반대, 소각장 주변 주민의 쓰레기 줄이기 등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면, 시민운동단체는 입법요구, 정치적 압력, 불매, 오염감시 활동, 생활환경운동, 유기농 직거래, 생명문화운동 등을 모색하고 있다.³⁾ 환경운동단체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그 단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환경운동단체의 주체, 이데올로기, 조직적 특성, 행동수단, 연결망 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사회에서 80년대에 전자의 흐름이 중심을 이루어 왔다면, 90년대에는 전자의 흐름과 후자의 흐름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3) 이러한 구분은 구도원의 환경운동 유형 분류를 참조한 것이다. 구도원에 따르면 한국 환경운동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구도원, 1998: 376).

운동주체\운동대상	국가	기업	시민
피해자운동	집단이주 요구운동 혐오시설 반대운동	피해배상 요구운동 공장입주 반대운동	소각장 주변 주민의 쓰레기 줄이기 운동
시민(압력)운동	입법요구운동 정치적 압력운동	불매운동 오염감시 활동	생활환경운동 유기농 직거래운동 생명(문화)운동

둘째, 한국 환경운동에서 관찰되는 특징의 하나는 90년대에 들어와 전국적 운동 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1997년 12월 현재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은 각각 4만 2천여 회원, 1만 5천 회원을 보유하고, 각각 29개와 7개의 지역조직을 갖추고 있는 방대한 전문환경운동단체이다.⁴⁾ 이 두 단체 가운데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80년대 주로 지역적 수준에서 전개되어 왔던 환경운동을 전국적 수준으로 이끌어 올렸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반핵운동에서 친환경적 정책 대안에 이르기까지 현재 환경운동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중앙조직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지방환경운동연합은 지역적 개별 이슈를 둘러싼 피해자환경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동시에 생활환경운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 환경운동단체의 이념적 지향

환경운동의 이념적 지향으로는 흔히 환경관리주의와 생태주의의 패러다임이 비교되고 있다. 환경관리주의가 근대산업사회의 생산과 소비를 변화시키지 않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생태주의는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인간, 환경과 사회·정치적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김호기, 1995b). 온건한 단체가 주로 전자의 시각에서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면, 급진적인 단체는 후자의 시각에서 환경파괴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관리주의와 생태주의의 덧붙여 자연보호주의와 민족민주주의 또한 한국의 환경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온 이념적 지향들이다. 자연보호주의가 심미적, 윤리적, 종교적 이유에서 자연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민족민주주의는 권위주의 정권의 반환경적 발전전략을 환경위기를 낳은 주요 요인으로 보고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민주화를 일차적인 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인다.

4) 1998년 3월 현재 지역환경운동연합으로는 부산, 대구, 광주전남, 마산창원, 울산, 진주, 대전, 전북, 원주, 서산태안, 춘천, 거제, 경기북부, 인천, 충주, 시흥, 서천, 남해, 청주, 속초, 여수여천, 과천, 목포, 창녕, 안양군포의왕, 광양, 안산(준), 고양(준), 평택(준)이 있으며, 지역녹색연합은 대전, 부산, 설악, 인천, 하남, 순천, 대구가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비교해 녹색연합의 지역조직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발전 과정을 환경운동의 성장과 거시적으로 연관시켜 볼 때 환경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념적 흐름은 경제우선론에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병행론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환경운동의 단계를 앞서 지적한 형성기와 확산기로 나누어 볼 때 전자의 시기에 민족민주주의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 후자의 시기에는 환경관리주의, 생태주의, 그리고 자연보호주의가 크게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 80년대 전반 환경운동의 이념적 지향으로 민족민주주의가 크게 강조된 것은 당시 환경운동단체가 환경운동을 민주화 운동의 하나로 추진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환경운동의 이념은 공해문제 발생의 요인을 군사독재 정권, 독점재벌, 다국적기업의 환경파괴적 발전 전략에서 찾고 반공해운동의 주체를 민중으로 설정하는 사회변혁의 이데올로기 틀 내에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정수복, 1996).

80년대 초반 환경운동의 이러한 이념적 지향은 당시 환경운동단체의 창립 목적이나 창립 취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82년 창립한 공문연은 공해를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 모순이 극단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공해는 독점자본과 결탁한 정치권력과, 외국의 공해산업을 들여올 때 안보론으로 합리화한 독재 권력에 의해 발생되었다. 따라서 반공해 운동의 목적은 독점 자본주의와 독재 권력, 그리고 분단체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이득연, 1998: 69). 공민협과 공청협 등의 운동단체의 이념적 지향도 이러한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1988년 출범한 공추련 또한 그 이념적 지반을 민족민주주의에 두고 있었다. 공추련은 생명의 파괴와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과 핵 문제의 발생 원인을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독점 재벌과 그 비호자 군사독재, 그리고 한반도를 식민지 쓰레기장으로 여기면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이 그 주범”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으며, 따라서 환경운동의 전략은 “전체 민중

5) 구도완(1996)에 따르면 한국의 환경운동조직의 이데올로기는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 왔다. 제1시기(1960-79)에는 전반적으로 환경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제2시기(1980-87)에는 민족민주운동의 영향을 받은 좌파환경주의가 주류를 이루었고, 형식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제3시기(1988-91)에는 생태주의와 환경관리주의가 새롭게 등장했다. 리우 환경회의가 열린 1992년을 전후로 시작된 제4시기(1992년 이후)에는 좌파 환경주의가 급격히 쇠퇴하고 생태주의가 점차 확산되었고 환경관리주의를 내포한 ‘시민 환경운동’이 지배적인 경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운동, 즉 자주, 민주, 통일운동과 적절히 결합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이득연, 1988: 70). 80년대 전반 환경운동단체가 환경운동이라는 말보다 반공해운동을 선호했다는 사실은 당시 환경운동단체의 이념적 지향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⁶⁾

그러나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제한적으로 전개되고 환경운동이 다양해지면서 환경운동의 이념적 지향 또한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공추련의 후예로 1993년 개편된 환경운동연합의 창립선언문에서 찾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 동안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이를 무분별하게 진행시켜온 잘못된 정책들”과 “이러한 정치, 경제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시민 개개인들 역시 무질제한 소비생활로 환경을 더욱 파괴하고 오염시키”게 되었다고 진단하고, “단순한 저항과 반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과학적 원인 분석을 기초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실천 운동으로 환경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환경련, 1994, 표지 뒷면). 환경위기의 주요 책임자로서 “기업과 정부 그리고 시민개인들”을 지목하고 “새로운 환경의식과 실천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터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시민운동”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공추련의 이념적 지향과 차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환경운동연합의 이념적 지향은 생태주의에 중심을 두되 한국적 현실에 주목하여 여타의 이념적 지향들을 결합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념적 지향의 변화는 1987년 이후의 사회운동과 시민사회의 구조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다시 말해, 민주화운동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가 제한적으로 도입되면서 사회운동 세력들 사이에 정세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민중운동과 시민운동간의 노선분화가 진행되었다. 기존의 민중운동에 대해 시민운동은 민주화과정을 통해 중간계층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고 보고 특정 계층의 이익을 초월하여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하는 점진주의적 비폭력·평화·합법운동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분화는 시민사회의 지형이 ‘국가 대 시민사회’의 단일한 대결 구도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다층적 대결 구도로

6) 반공해운동 개념을 선호한 경향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조건으로부터 크게 영향받았다. 다시 말해, 체제와 극단적인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정치적 피압박자의 반체제 운동에 상응하는 공해 문제에서의 공해피해자 운동을 부각시키는 것이 환경운동 이념의 주요 흐름을 이루었다(이득연, 1998: 63).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김호기, 1995a). 이러한 시민사회에 변화에 대응하여 환경운동은 90년대 초반 민중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 점차 그 성격이 바뀌어져 갔으며, 환경운동단체의 이념적 지향 또한 민족민주주의에서 생태주의를 중심으로 한 담론으로 변화되어 왔다.

80년대 후반 이후 환경운동의 이념적 지향의 하나는 심층생태학과 사회생태학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심층생태학과 사회생태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운동으로는 『녹색평론』과 유기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펴는 한살림 공동체 등을 주목할 수 있다(김종철, 1991; 한살림, 1990; 김지하, 1992).⁷⁾ 근대 문명의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거부하는 이들의 논의는 대안적인 생태적 가치체계에 기반하여 인간해방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유정길, 1994). 한살림공동체에 따르면, 현대 산업문명의 위기는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과학 기술의 맹신 아래 직선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한 결과로 초래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물질과 우주를 기계 모형으로만 인식하고 생명현상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지 않는 반생태적 자연관에 기인한 것이다. 한살림 공동체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으로 한살림운동, 다시 말해 동양의 전통사상에 기초한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과 가치, 양식을 지향하는 생활문화운동, 생명의 질서를 실현하는 사회실천 운동,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한 생활 수양활동으로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생명의 통일운동을 포괄하는 한살림운동을 부각시키고 있다(한살림, 1990: 6-43). 의식혁명과 생활양식의 총체적 변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러한 이념적 지향은 초기 사회주의와 매우 가까운 에코토피아를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3) 환경운동단체의 조직적 특성

일반적으로 환경운동의 주체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된다. 한편에서는 환경위기가 궁극적으로 전지구적인 것이므로 그 주체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라는 견해가 제시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중간계급 및 신사회운동 세력' 혹은 '노동자계급'이 지목된다(Dobson, 1990: 180-200).⁸⁾ 하지만 환경운동이 다차원적인 운동형태를

7) 심층생태학과 사회생태학에 관해서는 김호기, 1995b를 볼 것.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운동을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그 주체는 달라진다. 환경운동을 피해보상 혹은 생존권 확보의 시각에서 볼 때 운동의 주체는 그 피해를 당한 사회집단 혹은 계급이지만, 시민사회 내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시민운동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그 주체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탈계급적인 일반시민이 된다. 이러한 환경운동의 주체가 갖는 특징은 운동단체의 회원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지역환경운동단체의 경우 그 피해가 주민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해당사자나 피해예상 당사자가 주요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시민환경운동단체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은 일반 시민들이 주요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의 <표 3>과 <표 4>는 환경운동단체의 회원 구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⁹⁾ <표 3>에서 환경운동단체 회원의 직업 구성을 보면 전문사무직과 학생 및 기타가 주요 회원이며, 특히 전문사무직의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환경운동단체의 회원 구성은 다른 사회운동단체의 구성과 대비해 볼 때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학생 및 기타 집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특기할 만하다. 전문사무직과 학생의 비중이 높은 것은 환경운동의 중심 세력이 신중산층이라는 점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것은 노동운동단체와 대비되는 서구 신사회운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를 보면 회원의 연령 구성에서 환경운동단체는 다른 운동단체와 비교해 볼 때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서구 신사회운동의 주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8) 전체적으로 볼 때, 운동 주체에 대한 전자의 보편주의적 시각은 그 논의가 다분히 유토피아적이기 때문에 현실 지형 내에서 가능한 주체의 정치전략을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에, 환경운동의 주체를 계급적 수준으로만 한정하는 것 또한 이 운동의 주체가 다계급적이자 비계급적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생태사회주의가 강조하듯이 현대 자본주의는 노동과 자본의 모순,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모순이 중첩되어 있으며(Gorz, 1980; Pepper, 1984; Lipietz, 1995; Ryle, 1988), 따라서 생태적 압박으로 인한 자연 조건의 위기는 이러한 이중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9) <표 3>, <표 4>, <표 5>, <표 7>의 조사대상 환경운동단체는 지역산하단체인 인천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단일운동단체인 낙동강보존회, 환경과공해연구회, 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그린웨일리운동연합,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불교환경교육원, 생명가치를찾는민초들의모임, 녹색소비자연대이다. 그리고 아래의 <표 10> 또한 개별 조사의 결과이다.

〈표 3〉 회원의 직업 구성

(단위: %)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사회복지운동	구사회운동
전문사무직	33.1	51.6	74.8	55.2	53.2
판매생산직	11.8	13.9	14.5	14.4	21.6
농어민	8.5	3.4	0.0	1.9	1.6
주부	42.8	11.3	2.8	14.1	14.6
학생 및 기타	3.8	19.3	2.6	13.7	8.3

〈표 4〉 회원의 연령 구성

(단위: %)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사회복지운동	구사회운동
20세 미만	1.6	15.8	0.0	6.4	1.7
20-29세	11.9	25.2	21.8	13.0	9.9
30-39세	30.4	29.2	26.7	37.1	45.0
40-49세	28.0	21.8	24.0	25.4	24.0
50-59세	22.3	14.3	20.0	15.1	10.0
60세 이상	4.5	3.0	6.3	4.2	5.1

환경운동단체는 그 유형에 따라 상이한 조직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환경운동단체가 그 사안의 성격상 높은 조직적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다면, 시민환경운동단체는 전자와 비교해 비교적 낮은 결속력으로 특징지어진다. 예를 들어 반핵운동과 생활환경운동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차이는 쉽게 관찰되는데, 경제적 관심, 또는 경제적 관심과 생태적 관심이 결합되어 있는 반핵운동의 조직이 높은 참여와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생태적 관심이 강조되는 생활환경운동의 조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와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와 환경운동의 이슈가 다양해지고, 특히 도시 중간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환경운동이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환경운동의 자발적인 참여 수준이 이렇게 낮은 것은 환경 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인 피해로 구체화되지 않는 한 사회운동으로 동원화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민환경운동단체의 조직적 특징은 여성운동, 인권운동, 사회복지운동에서 관찰되는 이른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문제가 환경운동단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 특징은 사회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90년대 초반 미국의 경우 국민의 50%가 어떤 형태로든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국민의 30%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1991년의 경우 16.9%에 불과하다(송복, 1996: 124). 시민들의 사회 봉사와 참여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시민운동의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점은 시민환경운동단체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그대로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역사가 일천하기는 하나 주요 환경운동단체의 회원 규모가 여전히 작은 것은 그 단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¹⁰⁾

환경운동단체 또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재정문제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환경운동단체의 운영 및 사업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와 후원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정에서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데,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재정에서 회비의 비중은 2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회비의 비중은 다른 운동단체와 비교해 볼 때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5> 재정 의존도 구성

(단위: %)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사회복지운동	구사회운동
회비	13.6	24.5	26.7	31.6	28.9
정부지원비	16.9	7.2	15.8	10.6	10.0
개인후원회	6.9	14.8	22.2	15.9	14.9
기업후원회비	3.1	14.2	3.9	6.0	5.6
지자체후원금비	8.4	11.8	0.0	9.5	6.6
수익사업비	16.5	11.8	17.1	14.9	15.0
자산수익비	13.3	4.4	1.3	2.1	4.4
기타비	21.2	11.1	4.7	9.4	11.5

10) 예컨대, 1997년 12월 현재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은 4만 5천여 명, 녹색연합은 1만 5천명, 그린웨일리연합은 2만 6천명, 녹색소비자연대는 7천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환경운동연합 결산보고서(1997)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회비 및 후원금	576,684,520	인건비	374,291,900
재정사업 수입	247,855,900	사업비	458,940,140
교육사업 수입	47,067,370	회원사업비	184,406,487
프로젝트 수입	266,920,500	환경조사비	48,553,040
기 타 수 입	1,462,759	생태조사비	9,796,970
		교육사업비	29,306,183
		반핵평화비	30,071,350
		재정사업비	100,710,570
		행사비	56,095,540
		일반관리비	269,335,268
		당기잉여금	37,423,741
합 계	1,139,991,049	합 계	1,139,991,049

출처: 환경운동연합, 1998b: 15.

〈표 6〉은 대표적인 환경운동단체인 환경련의 구체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1997년 환경련의 전체 수입 가운데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0.6%이며, 나머지는 주로 재정 사업과 프로젝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녹색연합의 경우 1997년 전체 수입에서 회비와 후원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환경운동연합보다 낮은 6.9%, 6.3%였다(녹색연합, 1998). 이러한 회비의 수준은 다른 사회운동단체와 비교해 볼 때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참여연대의 경우 전체 수입 중 회비의 비중은 약 20%, 후원금의 비중이 40%였으며, 경실련의 경우에도 전체 수입에서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2% 정도였다(권영준, 1996). 환경운동단체의 이러한 재정 상황은 한국 환경운동에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징표이자, 운동의 풀뿌리적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 환경운동단체의 행동수단과 전략

1) 환경운동단체의 행동수단

일반적으로 서구 구사회운동의 주요 행동수단이 정치적 동원에 있다면, 신사회 운동의 전략은 직접행동과 문화혁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Scott, 1990: 19). 환경운동과 연관시켜 볼 때 직접행동은 각종 개발저지 및 반대를 위한 대중 동원, 환경 감시 및 고발, 그리고 다양한 생활환경운동에의 직접적인 참여로 나타나고, 문화혁신은 각종 캠페인 및 여론 형성,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이와 더불어 환경보호에 대한 다양한 입법 요구와 정책대안 제시 또한 환경운동의 주요한 행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80년대 전반 환경운동의 형성기에는 피해보상운동 내지 건설저지운동과 같은 직접행동이 환경운동의 주요 행동수단이었다면,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문화혁신과 정책대안 제시가 새로운 행동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각종 토론회, 성명서 발표 및 서명 등은 공공영역에서 환경파괴의 실상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수단의 변화는 단절적인 성격이 강하기보다는 기존의 운동 방식에 새로운 운동방식이 중첩되는 연속성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90년대에 들어와서 안면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저지운동 등은 80년대 운동방식과 연속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며, 1997년의 경우에도 영흥도 유연탄화발전소 저지운동, 차산리 코리아트윈스 골프장 건설반대운동 등이 전개되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90년대에 들어와 서구 환경운동에서 빈번히 활용되었던 이른바 전위적 시위가 새로운 행동수단의 하나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전위적 시위조직의 효시는 1993년 결성된 배달녹색연합의 하위조직인 '녹색전사단'이라 볼 수 있는데, 25-30명 정도로 구성된 이들은 1993년 9월 광양만 기름유출 사고시 녹색호를 출동시켜 상황실을 개설하고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조사활동을 벌였으며, 1994년 3월에는 인왕산 치마바위에서 자일과 로프에 의지한 채 암벽 단식 농성을 감행하면

〈표 7〉 운동 방식의 비교

(단위: 회 수)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사회복지운동	구사회운동
단체의 토론회	8.3	13.5	5.1	20.1	7.6
항의 집회 및 시위	10.4	10.2	8.4	8.7	13.0
성명서 발표 및 서명	9.2	11.2	9.4	15.4	22.6
자체 신문 및 잡지 발행	14.9	8.9	27.9	18.0	11.8
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30.2	7.5	16.6	24.1	14.8

서 정부의 환경정책을 규탄하여 상당한 관심을 불러모았다. 이에 뒤이어 환경운동 연합 또한 1994년 4월 '생명의 빛'이라는 환경전사대를 결성하여 서울 종로 3가 세운상가 빌딩에서 반핵을 내용으로 한 대형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전개한 바 있다 (이득연, 1998: 100-101). 최근 들어 이러한 전위적 시위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 행동의 파격성으로 인해 환경 여론의 형성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서구 급진적 환경운동단체들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 전위적 시위는 신사회운동의 직접행동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표 7〉은 환경운동단체의 1997년 주요 행동수단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환경운동단체의 경우 토론회, 항의 집회 및 시위, 성명서 발표 및 서명이 주요 행동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홍보물 제작이나 회원 교육 프로그램 또한 활발히 운영되어 왔다. 이 방식 가운데 특히 토론회나 성명서 발표 그리고 집회와 시위는 환경에 대한 공공영역의 관심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집합적 운동으로 전화시키려는 이른바 '영향의 정치'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영향의 정치는 권력정치의 장에 직접 진입할 필요없이 공공정책과 정치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민사회와 민주화에 기여하는 전략을 지칭한다(Cohen/Arato, 1992). 90년대에 들어와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한 것은 무엇보다도 환경오염 및 파괴의 현황을 폭로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여론화하려는 전략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입법 요구와 정책대안 제시 또한 매우 중요한 환경운동단체의 운동방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환경과공해연구회 등과 같은 전문환경연구단체와 전국적 수준의 환경운동단체의 정책기획팀 및 연구소의 역할을 주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과공해연구회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참여방안, 쓰레기 소각문제 해결방안 등과 같은 정책대안을 발표하여 환경운동단체 내외부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

〈표 8〉 최근 제정·개정된 법의 환경성 평가(1997)

부처	검토 대상 법안 수(A)	개악법안 합계(B)	3개 조항 이상 개악법안		1-2개 조항 개악법안		개악법안 비율 (B/A)
			법안 수	조항 수	법안 수	조항 수	
총계	52	32	11	65	21	29	61.5
환경부	16	7	4	35	3	3	43.8
건설교통부	8	4			4	8	50.5
통상산업부	9	7	3	17	4	6	77.8
해양수산부	7	5			5	7	71.4
문화체육부	6	4	2	6	2	2	66.7
농림부	3		2	7			66.7
국방부	2	2			2	2	100.0
총무처	1	1			1	1	100.0

출처: 이치범, 1997: 296.

았다(환경과공해연구회, 1994, 1995). 1997년도 개정 및 제정 예정의 법률 중 60% 가량이 반환경적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조사를 주목해 볼 때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제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표 8〉을 볼 것). 하지만 이러한 대안 제시는 아직 그 성과가 미흡하고 답보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책 연구 기능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환경운동의 아킬레스건인 생태논리와 경제논리의 내적 긴장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생태적으로 조화로운’ 성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모색은 한국 환경운동단체의 과제인 동시에 서구 환경운동단체가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다른 사회운동단체와 비교해 볼 때 분권적 공동체운동은 환경운동단체의 주요한 전략의 하나로 주목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운동의 기원은 전근대시대의 두레공동체에까지 소급할 수 있지만, 공동체운동조직이 다시 새롭게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공동체운동은 흔히 지역운동, 협동조합운동, 소공동체운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적 기반성, 대외적 폐쇄성, 의식적 이념성, 대안적 실험성이 두드러지는 소공동체운동이 가장 전형적인 공동체운동이라 할 수 있다(〈표 9〉를 볼 것). 1989년에 결성된 한살림 모임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농촌마을, 경기도 화성의 야마기시 공동체, 충남 홍성의 풀무원 마을은 생태주의를

〈표 9〉 우리나라 공동체운동의 세가지 조류 비교

대분류	소분류	특 징			
		지역적 기반성	대외적 폐쇄성	의식적 이념성	대안적 실험성
지역운동	두레공동체	●	●	●	○
	반공해주민운동	●	○	●	○
	신도시주민운동	●	○	○	○
	지역시민운동	○	○	○	○
협동조합운동	소비자협동조합운동	●	●	●	●
	생산자협동조합운동	●	●	●	●
	노동자협동조합운동	○	●	●	●
소공동체운동	종교적 소공동체운동	●	●	●	●
	비종교적 소공동체운동	●	●	●	●

* 제시된 공동체운동 가운데 특징이 아주 강한 것은 ●, 보통으로 강한 것은 ○, 다소 약한 것은 ○로 표시했음.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상대적인 것으로 운동상호간의 구분에 초점을 둔 강도표시임.

출처: 구자인, 1995: 100.

지향하는 대표적인 비종교적 소공동체조직으로, 인격적 친밀과 정서적 깊이, 도덕적 헌신과 수양, 내적 응집력, 육체노동과 인간관계의 중시, 만인의 행복추구를 지향하는 친환경적 분권주의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구자인, 1995: 98). 이러한 분권적 공동체운동이 추구하는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비판이 제시되어 왔다.¹¹⁾ 그러나 공동체운동들은 환경보전에 대한 철저하고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안승준, 1994), 한살림 운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 예컨대 독슨은 다음의 세 각도에서 이러한 분권주권적 프로그램을 비판하고 있다(Dobson, 1990: 216). 첫째, 우리가 녹색사회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국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녹색운동이 상정해온 환경문제들을 다루는 데에는 계획이 필요하며, 이는 집권화된 정치구조에서만 제공될 수 있다. 셋째, 녹색주의자들의 평등주의적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재분배를 편성하는 데에도 집권화된 정치구조가 필요하다.

2) 연대와 갈등

환경운동은 그 이슈가 다른 운동단체의 이슈와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운동단체간의 활발한 연대를 모색해 왔다. 이러한 연대 활동은 크게 환경운동단체 내부와 외부의 두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내부적으로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의 연대와 환경운동단체간의 연대가 추진되어 왔다면, 외부적으로는 이슈에 따라 다른 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가 활성화되어 왔다.

우선, 전국적 규모의 환경운동단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80년대 전반에는 개별 이슈에 대한 운동단체들의 개입과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온산병 투쟁이나 상봉동 진폐증 사건에서는 공문연을 필두로 여러 환경운동단체가 참여했으며, 1990년에 일어난 안면도 핵폐기장 건설반대투쟁에는 환경운동단체들은 물론 다른 사회운동단체들까지 적극적으로 운동에 가세했다. 안면도 투쟁의 경우 핵폐기장이 안면도에 건설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안면도 주민들은 핵처분장 건설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청년층과 학생들의 높은 참여 하에 며칠에 걸친 대규모 시위와 집회를 벌였는데, 공추련 등 전국의 20여 개 공해추방 반핵평화 운동단체들이 '전국 핵발전소 추방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운동을 주도했다. 이 투쟁에 참여한 단체들을 보면 초기에는 공추련, 환경과공해연구회, 한국반핵반공해평화연구소, 평화연구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전민련, 전노협, 전농, 전교조, 민중당, 전국건설일용노조 등이었으며, 이어서 부산공민협, 광주환경공해연구회, 목포녹색연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이 추가로 참가했다(이득연, 1992: 338). 광범위한 대중 동원의 결과 정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이 안면도 투쟁은 환경운동단체간의 연대는 물론 환경운동단체와 다른 사회운동단체간의 연대의 모범적 사례로 볼 수 있다.

90년대에 들어와 이러한 연대활동은 전국적인 지역조직을 갖춘 환경운동연합의 등장으로 인해 보다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업으로 전개되었으며, 피해보상이나 건설저지운동 뿐만 아니라 자연보호나 생활환경개선 등이 새로운 연대 활동 이슈로 부각되었다. <표 10>과 <표 11>은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 1997년에 추진했던 주요 연대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지역조직과의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덜 활발한 녹색연합의 경우 중앙 단위의 수준에서 환경운동연

〈표 10〉 녹색연합의 연대사업(1997)

단체명	연대활동 내역
환경운동연합	환경캠페인, 성명서, 대만핵폐기물 저지 등 다수
경실련	환경캠페인, 성명서, 대만핵폐기물 저지 등 다수
YMCA	환경캠페인, 성명서, 대만핵폐기물 저지 등 다수
불교환경교육원	북한돕기운동, 교육
전교조	우유병 살리기
경주시민모임	핵발전소 건설반대 운동
월성핵발전소 대책위	핵발전소 건설반대 운동
영광	핵발전소 건설반대 운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과제 21 작성, 음식쓰레기 줄이기 등 다수
환경과공해연구회	캠페인, 수도물 대책위 활동 등
강화발전연구회	강화지역 그린플랜 수립 등
김제경실련	갯벌보존 세미나 등
수원환경운동센터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등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갯벌보존
여성민우회	쓰레기 줄이기
시민협	대선 정책개발 등

합, 경실련, YMCA와 함께 환경캠페인 및 성명서 발표, 대만핵폐기물 저지운동 등 연대 활동을 벌였으며, 지방 단위에서는 핵발전소건설 반대운동을 위시해 갯벌 보존 등 여러 연대사업을 전개했다. 한편 〈표 11〉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은 1월 노동법 투쟁에서 12월 경제실정 규탄 및 고용안정 촉구 시민대회에 이르기까지 비단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연대활동을 벌여 왔다. 환경오염 및 파괴가 사회제도와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연대사업은 시민社会의 내적 균열과 갈등을 봉합하여 보편이익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대활동이 증대했다고 해서 환경운동이 다른 사회운동과 언제나 양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환경운동단체의 생태적 관심이 해당 지역 거주민이나 이해당사자의 경제적 관심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환경운동단체와 다른 운동단체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80년대 원진례 이온 사건과 최근 대구 위천공단의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바로 이러한 갈등을 보여

〈표 11〉 환경운동연합의 연대 활동, 1997

연대사업	
1월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무효 및 민주수호 투쟁 참여
2월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
3월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창립대회 공동개최
4월	민주개혁사회단체연대회의(약칭: 민주연대) 결성 참여
5월	'97 제1차 민간환경정책협의회 참여
6월	대선자금 관련 대통령 수사 촉구 결의문 발표(민주연대)
6월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개혁 촉구 집회(민주연대)
7월	돈안드는 정치를 위한 정치 관계법 개정의 청원(돈정치추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7월	정치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9월	'97 제2차 민간환경정책협의회 참여
12월	'97 제3차 민간환경정책협의회 참여
12월	경제실정 규탄 및 고용안정 촉구 국민대행진(민주연대)

출처: 환경운동연합, 1998a: 43.

주는 중요한 사례들이다. 우선 1988년 수많은 직업병 환자를 배출한 원진레이온의 경우 상당수 노동자들을 반신불수나 정신분열증으로 몰아 넣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황화수소를 내뿜어 지역주민들이 심한 악취로 여러 차례 시위와 농성을 벌였을 정도였다(『월간환경』, 1993년 8월호, 59쪽). 이는 공장 내부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쳐 공장측이 공장의 굴뚝을 조금 더 높여 공장내의 황화수소를 공장 밖으로 뿜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당시 원진레이온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는 “우선 그거라도 좋다” 또는 “공해방지시설까지 다 요구하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신철영, 1990: 47), 이러한 사례는 경제적 관심과 생태적 관심이 상충할 때 환경운동과 다른 사회운동간의 갈등이 현재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96년 대구 위천공단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진행된 갈등은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대구 지역의 만성적인 불황을 타개하고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위천공단계획을 발표했으나, 부산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100여 개의 시민운동단체가 위천공단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회, 시위, 청원 등을 통해 낙동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다(환경운동연합, 1997: 261, 269-270). 위천공단 갈등은 ‘개발이냐 환경이냐’의 문제를 둘러싼 시민운동단체간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는데,

대구 지역 내에서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반대를 표명했지만, 대구 경실련을 포함한 상당수 시민운동단체들은 대구시 계획을 지지하는 견해를 표명했다(장석준, 1996: 44). 낙후된 대구 지역경제를 고려할 때 후자의 주장을 지역이기주의로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 없다는 데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놓여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환경운동단체와 다른 사회운동단체간의 갈등이 이슈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환경위기에 관련된 보편이익 내지 생태적 이익이 특정지역 및 집단에 관련된 특수이익 내지 경제적 이익과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Ryle, 1988: 19-21; 이상현, 1993).¹²⁾ 따라서 이러한 이익들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서 환경운동단체와 다른 사회운동단체간의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과 연대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사회가 다양한 사회운동단체의 전략들이 교차하고 있는 사회적 공간이라면 환경운동단체들은 시민사회의 공간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연대의 정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환경운동단체들은 '연대 속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차이 속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주체적 조건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 환경위기가 자본주의의 경제적 위기와 연관되어 있으되 그것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면 환경운동 또한 계급운동에 일방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계급정치를 중시하는 시각은 환경운동을 포함하는 녹색정치가 계급적 관점을 간과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환경 실태를 주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동 주체를 설정하는 데 노동자계급을 배제하고 있으며, 또한 녹색주의의 분권주의적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유토피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Miliband, 1989: 95-114). 반면에 환경운동을 중시하는 시각은 노동조합이 환경을 파괴하는 데 오히려 공조자일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해방적인 에너지가 이미 소진되었음을 상기시킨다(Bahro, 1984). 자본주의의 경제위기와 환경위기가 상호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사이에는 이렇게 적지 않은 갈등의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깨끗한 공기만을 먹고 살 수는 없다”나 “배가 고프거든 환경론자를 잡아 먹어라”는 서구 노동자들의 구호는 이러한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양현아, 1990: 76-77). 계급정치의 과제와 생태주의적 과제가 어느 한쪽으로 환원될 수 없다 하더라도, 환경문제의 주요 발생 원인의 하나가 산업사회의 무제한적인 생산과 소비에서 비롯되었고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집단이 주로 피지배계급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때(기요시, 1996), 정치적 연대의 중요성은 한층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한국의 환경운동단체는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 초기에는 공단 및 원전 지역 중심으로 반공해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운동의 조직, 이슈, 영역, 그리고 행동수단을 확장하고 다양화시켜 왔다. 압축적 경제성장에 따른 대규모의 환경오염과 환경파괴의 현실을 지켜 볼 때 이러한 환경운동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내포와 외연을 심화시키고 확산시켜 온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운동단체의 활동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 환경운동의 시민사회적 지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또 그 이슈의 성격상 여타의 사회운동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환경운동의 중요한 특징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직접참여의 활동 방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환경운동의 경우 그 참여의 수준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환경운동을 신사회운동의 하나로 볼 수 있는가.¹³⁾ 일각에서는 여성운동, 환경운동, 교육운동 등이 모두 ‘시장 밖의 운동’으로서 생활방위, 새로운 가치지향, 생태학적 보존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신사회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이시재, 1992, 1995). 이러한 견해는 9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이 기존의 노동/계급운동 중심의 운동으로부터 지역/시민운동으로 구성되는 신사회운동이 주도하는 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변혁운동노선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환경운동은 기존의 민중운동과 다른 새로운 이슈, 이데올로기, 운동방식 및 이해관심을

13)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이란 지난 70~80년대 유럽과 북미에서 크게 증대한 환경·평화·여성·반핵·반문화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지칭한다. 그것이 ‘새로운’(New) 사회운동으로 불리는 것은, 이 운동들이 이제까지 근대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운동 형태인 노동운동과 비교해 볼 때 위치(시민사회)·목표(가치 및 생활양식 변화/시민사회 방어)·조직(네트워크/풀뿌리)·행동수단(직접행동/문화혁신)의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Scott, 1990: 19).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신사회운동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구도완, 1996).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90년대 크게 증대된 시민환경운동에 제한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환경운동은 지역환경운동과 시민환경운동이 중첩되어 있으며, 지역환경운동에 내재된 구사회운동적 성격을 주목할 때 국내의 환경운동을 서구의 신사회운동과 곧바로 등치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시민환경운동이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신사회운동적인 성격이 앞으로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환경보전은 우리 인간의 지속적인 삶을 위한 가장 일차적인 조건이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유해하지 않은 식품은 바로 환경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다. 환경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그것을 오염시킬 경우 너무나도 치명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운동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하지만 한국의 환경운동은 지난 20년간 크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참여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참여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국의 환경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풀뿌리 조직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혁 못지 않게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면, 이 환경의식의 변화는 운동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의 환경운동은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그 성격상 다른 사회운동의 관심과 상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위기가 계급갈등, 성차별을 포괄하는 사회문제들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다른 사회운동들과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한국의 환경운동은 시민사회의 민주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도완(1996),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 _____(1998), “한국 환경운동 평가와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 환경과생명 편, 『녹색 한국의 구상』, 숲과 나무.
- 구자인(1995), “국내공동체운동의 세 가지 조류,” 『환경과 생명』 겨울호.
- 권영준(1996), “시민단체 대해부 1: 재정,” 『참여사회』 5·6월호.
- 김종철(1991), “창간사: 생명의 문화를 위하여,” 『녹색평론』 1호.
- 김지하(1992), 『생명』, 민음사.
- 김호기(1995a), 『현대 자본주의와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 _____(1995b), “환경사상과 환경운동의 쟁점 및 흐름,” 『창작과 비평』 겨울호.
- 녹색연합(1998), 『1997년 대의원 총회 자료집』.
- 이득연(1992), “주민환경운동의 전개과정과 의미구성: 반핵발전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1998) 『환경운동의 사회학』, 민영사.
- 박재묵(1995), “지역반핵운동과 주민참여: 4개 지역 원자력시설 반대운동의 비교,”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백욱인(1990) “현단계 도시지역운동의 성격과 과제,” 기독교사회연구소 편, 『도시주민 지역 운동』, 한울.
- 송복 외(1994), 『2002 선진 시민의식 지표 개발』,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 신철영(1990), “지역운동과 노동운동,” 기독교사회연구소 편, 『도시주민 지역운동』, 한울.
- 안승준(1995), 『국가에서 공동체로: 한국의 근대화에 대한 비판과 대안』, 환경운동연합 출판국.
- 양현아(1991), “새로운 사회운동의 전개와 논리,”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유재길(1994), “생태적 대안사회와 공동체운동,” 환경연구회 편, 『환경 논의의 쟁점들』, 나라 사랑.
- 이상현(1993), “한국 환경운동의 이데올로기와 주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재(1992), “90년대 한국사회와 시민운동의 방향,”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 _____(1995), “한국의 사회운동,” 한국사회학회 학술심포지움, 『광복 50년 한국사회와 사회학』 발표논문.
- 이치범(1997), “환경문제 해결방안,” 참여사회연구소 편,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39가지 개

- 혁과제》, 푸른숲.
- 장석준(1996), “‘지역개발’ 앞에 서면 작아지는 시민운동,” 《참여사회》 9·10월호.
- 정수복(1996), 《녹색 대안을 찾는 생태학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 최병두(1991), 《한국의 공간과 환경》, 한길사.
- 토다 기요시(1996), 《환경정의를 위하여: 환경파괴의 구조와 엘리트주의》, 창작과 비평사.
- 한살림(1990), 《한살림》, 한살림.
- 환경과공해연구회(1991), 《공해문제와 공해대책》, 한길사.
- _____ (1994),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참여방안》.
- _____ (1995), 《쓰레기 소각문제의 해결방안》.
- 환경부(1998), 《환경백서》.
- 환경운동연합(1994), 《1993 환경운동》.
- _____ (1995), 《1994 환경운동》.
- _____ (1996), 《1995 환경운동》.
- _____ (1997), 《1996 환경운동》.
- _____ (1998a), 《1997 환경운동》.
- _____ (1998b), 《환경운동연합 제6차 대의원총회 자료집》.
- Bahro, R. (1984), *From Red to Green*, London: Verso.
- Dobson, A. (1990), *Green Political Thought*, London: Unwin Hyman, 《녹색정치사상》, 민음사.
- Gorz, A. (1980), *Ecology as Politics*, Boston: South End Press.
- Lipietz, A. (1995), *The Green Hope*, London: Verso.
- Miliband, R. (1989), *Divided Societies: Class Struggl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epper, D. (1984), *The Roots of Modern Environmentalism*, Beckenham: Croom Helm.
- Ryle, M. (1988), *Ecology and Socialism*, London: Rodins.
- Scott, A. (1990), *Ideology and New Social Movements*, London: Unwin Hyman.

abstract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Environmental Movements

Kim, Ho-Ki*

This article aims to conduct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of environmental movements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uring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Korea has been developed rapidly after June Movement for Democratization 1987. Second, the main ideology of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is ecology, the secondary set of ideology are environmentalism, thought of nature protection, and deep ecology. Third, although the environmental movement has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grassroots democracy after June Movement for Democratization, regarding it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t suffers from the low levels of voluntary participation and financial independence. Forth, the strategies of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sations are direct action, cultur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of alternative policies, which aim at ‘politics of influence’ and advance the democratization of civil society. Fifth, the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have promoted various solidarities, for example solidarity between the central organization and local organizations, solidarity with other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but the latter often results in conflict because of the tension between economic interests and ecological interests. Finally, considering its ideology, issues, and mobilization methods,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Korea is regarded as one of the New Social Movements.

*Associate Professor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Research Area: Theories of Modern Society

Major Publications: *Contemporary Capitalism and Korean Society*(1995)

“Capital and State in the Age of Globalization”(1998)

E-mail: kimhoki@unitel.co.kr

However, it has to be noticed that the local environmental movement still has the characteristics of Old Social Movements as well.